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복음의 비밀    성경: 요한복음 15장 7-16절

Tag:

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2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3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16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15:7-16)

오늘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한다.

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 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라

우선 7절에 등장하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는 표현은 신령한 존재양식에 관한 요한의 독창적인 해석에서 비롯되었다. (바울이 비슷한 표현을 많이 사용함. 주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로 요한의 저작물에서 이런 표현이 등장한다.

물리적으로는 ‘너희가 내안에, 내가 너희 안에’ 가 설명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가 설명된다. 흔히 연인들은 당신을 내 호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고 싶다고 표현한다.

당신이 내 마음 속에 꼭 차있다는 표현도 가능하다.

그런데 7절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위치나 역할이나 권한이나 능력이 담겨있는 말씀이다.

그리고 가정법을 사용하셨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리라는 인과응보 구조이다.

아주 짙막한 말씀이고, 매우 단순하고 쉬운 문장이어서 이해하기도 매우 쉽고 간단하고 잊어버릴 수 없는 매력적인 말씀이다.

만약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가정법 만약 그렇다면 너희에게 매우 좋다. 복음이 된다. 그렇다면 너희는 이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대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과 핫 라인이 개설된 격이다. 직통전화가 개설되었다.

그리고 그 직통 전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저런 규제를 달아놓지 않으셨다. 딱 두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된다. ‘1.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2.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된다’

1번 조건은 교회의 정식 일원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2번 조건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주하면 된다.

그렇다면 1,2번 조건은 예배를 통해서 실행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 되겠다.

결론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와 친하게 지내신다.

### 8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결국 우리는 여러 가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니 기도하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열매가 많아지면,  
-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왜냐면 더 많은 말씀을 배워야 더 많은 것들에 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기 때문이다.

### 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7절~8절의 진리의 법칙이라면, 9절은 사랑의 방법이다. 9절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라는 7절의 조건절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방법 그대로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그 방법 그대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다.  
단순히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방법이 같아야 한다. 사랑하는 것에도 레벨이 있고, 방식이 있고, 조건이 있고, 가치관이 있다.

심지어 마귀는 죄인을 사랑한다. 그들의 사랑은 힘이나 권력에 대한 절대적 복종이다. 그들은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개 같은 것도 서슴치 않는다. (강패적; 이진 사랑이 아님) 이 사랑은 지배적, 보스적 사랑이다.

어떤 사람들은 등가 교환의 방식으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 만큼 너도 사랑해야지. 더치페이식 사랑이다. 그런데 이것은 거래지 사랑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절대로 깨우치지 못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 사랑은 세속적 사랑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다. 사랑의 에너지를 다 주

고도 되돌려 받으려 하지 않는다. 되돌려 줄 수도 없는 것이, 모두 소모되었기 때문이다. 세포를 만드는데, 성장에너지로 모두 소진되는 에너지이다. 이 사랑은 나중에 빼앗아 먹으려는게 아니다. 성장을 기뻐하고, 아름다움을 기뻐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방식이다. 우리는 이 사랑을 희생적 사랑, 거룩한 사랑이라고 한다.

이렇게 사랑을 먹고 성장한 사람은 결국 사랑을 하는 힘이 생긴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배운대로 동일한 방법으로 사랑하게 된다.

우리에게도 놀라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씨앗이 있다. 그런데 이 씨앗은 오직 사랑을 먹고 성장한다. 그리고 동일한 희생적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 이제 너희도 이 사랑 안에 거하라는 명령이다. 7절은 조건이 없었으니까, 결국 이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7절에서 선포한 복음이 이루어지게 된다. 7절은 가정법이고, 9절은 명령법이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 아버지와 예수님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 즉 이 명령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셨다.

### 10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 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은 구체적으로 명령을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신다. 사랑안에 ‘거하는’ 것은 곧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이다. 그런데 그 계명이 곧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해야 사랑안에 거하는 것이다. 불을 태워야 불 속에 거하는 것이다. 수소폭탄의 원리와 같다.

거하는 것이 중요한데, 태양도 태양의 중력 안에 갇혀 있어야 지속적인 폭발이 일어나고 열이 발생한다. 만약 폭탄처럼 터지기만 하면

순간적인 열만 발생하고 만다. 거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 안에, 예수님의 진리 안에,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희생적인 사랑의 생명력이 지속된다.

11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그러니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

12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계명은 곧 사랑하는 것이다.

13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좋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16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찬양예배>

제목 :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경: 스바냐 3장 17절

Tag: 제자훈련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 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습 3:17)

송은영권사 청지기대학 수료 보고

김모세 전도사 송별인사 (때로는 너의 앞에)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세가지를 행하신다.

1.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신다.
2.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조용하신다.
3. 우리 때문에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 노래하신다.

왜 잠잠? 사랑을 품고 잠잠하다. 야하리스,(카라쉬) (동사, hifil연이 은, imperf 과거진행형, 3ms)

1. 성장과 숙성을 위해서
2. 실수를 관용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 3.